

쇼지지 절

오시오야마 산 기슭에 위치한 쇼지지 절은 자연 경관과 사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사원으로서 인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경내에 심어진 100 그루의 벚나무가 흰색과 옅은 분홍색의 꽃을 화려하게 피워 ‘꽃의 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그루는 고명한 가인이자 승려인 사이교(1118~1190년)가 심은 ‘사이교자쿠라 벚나무’의 삼대손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경내와 주위 산들의 사면에는 많은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여름에는 녹음이 풍요로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가을에는 선명한 붉은 단풍으로 주변을 뒤덮습니다. 겨울에는 차분한 풍경 속에서 조용히 사색을 할 수 있으며, 눈이 쌓여 경내가 온통 새하얗게 물들기도 합니다. 또한 쇼지지 절에는 보존 상태가 좋은 불상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2월은 절을 개방하지 않아 참배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절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쇼지지 절은 원래 679년에 수행승이던 엔노 교자(634~701년 추정)가 창건하였고, 791년에 천태종의 개조인 사이초(767~822년)에 의해 규모를 확대해 재건되었습니다. 838년 당시, 부지 내에는 49곳의 불당과 탑을 비롯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토 대부분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쇼지지 절도 쇼군의 계승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진 오닌의 난(1467~1477년)으로 대부분이 파괴되어 현재 존재하는 건물 가운데 많은 것들은 16세기 후반에 지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물이 9세기에 지어진 니오몬 문으로서 여기부터 언덕길인 참배길을 500m 정도 나아가면 경내에 도착합니다.

루리코텐

루리코텐(瑠璃光殿)에는 양식, 크기, 시대가 다른 19구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쇼지지 절의 본존은 치유의 신인 약사여래상으로서 왼손에 든 약병에 오른손을 뻗은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좌 앞에는 작은 약사여래상이 유리 상자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큰 약사여래상의 태내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본존의 좌우에는 약사여래상의 협시로서 월광보살상과 일광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월광보살은 달을 나타내는 흰 원반을 들고 있고, 일광보살은 태양을 나타내는 붉은 원반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각각 12지의 동물 얼굴을 한 십이신장상이 모여 있습니다.

안쪽의 양 모퉁이에는 각각 높이 3m의 인왕상이 1구씩 서 있습니다. 이 두 인왕상은 원래 니오몬 문의 양쪽에 서서 사원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왼편 정면에는 원래 무사로서 쇼지지 절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또한 가인이기도 했던 사이교의 좌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인왕상과 약사여래상은 모두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27년에 다이고 천황(885~930년)의 칙명에 따라 저명한 서예가인 오노노 미치카제(894~966년)가 절 이름을 휘호한 편액이 마루 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편액 오른쪽에는 고위 귀족이며 서예가, 그리고 다도를 즐긴 사람이자 학자이기도 했던 고노에 이에히로(1667~1736년)가 쓴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편액 옆에 있는 개구리 장식품은 오노노 미치카제가 버드나무 가지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개구리를 보고 인내의 중요성을 다시금 배웠다는 일화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미다도와 후도도

루리코텐 옆에 있는 아미다도(阿彌陀堂)는 무한한 광명과 생명을 지녔다는 아미타여래를 모시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 단 높은 곳에 있는 후도도(不動堂)는 부동명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부동명왕은 엄하면서도 애정을 가지고 신자들을 지키고 인도한다고 믿어지는, 예리하고 사나운 모습을 한 신입니다. 쇼지지 절의 부동명왕은 특히 눈병 치유와도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후도도 뒤쪽으로 돌아가면 돌담에 만들어진 작은 구덩이에 부동명왕 석상이 모셔져 있습니다.